

# 질문지 작성 및 척도 구성: 이론과 실제

설 동 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I. 척도로서의 질문 문항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응답을 집계하여 사회적 사실을 파악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흔히 거론하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 및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은 통계청이 수행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이고, 또 대통령 지지도, 차기 대통령 (예상)후보의 지지율 등은 각종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수행한 표본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조사 결과를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사회 현상을 파악한다.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던진 질문 문항이 “얼마나 좋은 질문인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좋은 질문이란 ‘조사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응답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좋은 질문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는 조사자가 던진 질문의 ‘정확한 내용’(true value)을 응답자가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고, 후자는 응답자가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응답 내용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사자는 그의 질문 의도를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응답자가 최대한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질문 문항을 작성하는 것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사자의 의도가 응답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슬하게 본다. 질문을 조금만 애매하게 표현해도, 응답자들은 각자 편리한 대로 해석하여 응답하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질문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쓰레기(garbage)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질문 문항 작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질문 문항 작성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핵심 사항들을 실례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기존 연구 성과(홍두승 2000; Fowler 1995 등)가 충실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거나 무시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 II. 질문 문항의 미묘함

어떤 사람은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 내뱉은 한 마디 말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 게 사회현실이다. 이를 두고 우리 속담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질문’ 문항의 경우에 확실히 적용된다. 조사나 접미사 한두 글자만 바꾸더라도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자 몇 자로 전혀 다른 사회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1969년 미국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갤럽과 해리스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음은 그 질문과 응답 내용이다.

<예문 1> 닉슨 대통령은 금후 3개월 사이에 베트남에서 2만 5천 명의 미군을 철수 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철수 속도를 더 빨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천천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Gallup Poll, 1969·6)

- ① 더 빨리 하여야 한다 42%
- ② 그대로가 좋다 29%
- ③ 더 천천히 하여야 한다 16%
- ④ 무응답 13%

<예문 2> 귀하는 닉슨 대통령에 의한 베트남의 미군 철수 속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르다고 보십니까? 느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하십니까? (Harris Poll, 1969·9~10).

- ① 빠르다 29%
- ② 적당하다 49%
- ③ 느리다 6%
- ④ 무응답 16%

자료: Marsh (1990: 233).

<예문 1>에서 “그대로가 좋다”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9%이지만, <예문 2>에서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9%다. 이 정도 차이는 3개월이라는 조사 시점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이 두 질



### Ⅲ. 질문지의 종류와 작성 원칙, 질문 형태 및 배열 순서

#### 1. 질문 문항의 종류

질문 문항은 개방형(open-ended questions)과 폐쇄형(closed-ended questions)이 있다. 개방형 질문은 모든 가능한 범주를 알 수 없거나 응답자의 창의적 응답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폐쇄형 질문은 주요 가설을 표준화된 선택 범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집계할 때 사용한다. 한편, 이 둘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사전조사(pretest)나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응답범주를 제시하고 그로써 포괄되지 않는 부분을 “기타(\_\_\_\_\_)”라는 선택지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예문 5).

<예문 5> 귀하가 대학생활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만 √ 표하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공 공부     | <input type="checkbox"/> ② 교양 공부         |
| <input type="checkbox"/> ③ 취업 준비 공부  | <input type="checkbox"/> ④ 교수와의 인간 관계    |
| <input type="checkbox"/> ⑤ 교우 관계     | <input type="checkbox"/> ⑥ 동아리·소모임·학회 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⑦ 이성교제      | <input type="checkbox"/> ⑧ 없다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_____) |  |

자료: 동국대학교 사회조사실습팀(2000).

동일한 내용을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경우 그 측정 결과의 절대치를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컨대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름을 적어주십시오.”라는 문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율과, “귀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한 비율은 당연히 현격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질문 문항의 종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델파이(delphi) 조사 기법이 있다. 델파이 기법은 제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제2차 조사에서는 폐쇄형 질문을 사용한다. 한백연구실(1994)은 “30만 명 정도의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일하게 될 경우 한국사회에서 발생할 사회적 효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회학자, 노동운동가, 외국인노동자 관련 사회단체 활동가 등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994년 5~7월의 3개월에 걸쳐 2차례 팩시밀리 조사를 수행하였다. 제1차 조사는 모든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하였으나, 제2차 조사는 제1차 조사 결과를 범주화한 ‘폐쇄형 질문’을 동일한 응답자에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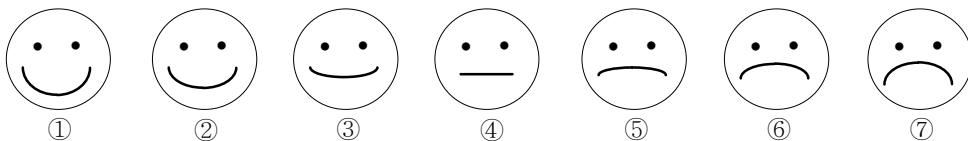
## 2. 질문지 작성 원칙

질문 문항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무 복잡하거나 세세한 질문,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 이중부정을 포함하는 질문은 절대 금물이다. 가능하면 두 개 이상의 질문을 한꺼번에 하지 말아야 하고, 조사자가 원하는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이 없도록 하며,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정답(正答)만 말하게 하는 상황을 회피하여야 한다. 응답자의 자존심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가급적 완벽한 문장으로 질문한다.

## 3. 질문의 형태

첫째,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질문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면접조사가 조사비용과 시간은 가장 많이 들지만 최적의 질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편조사는 면접조사와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경우 부연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온라인 사회조사의 경우 그래픽과 음향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우편조사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조사자의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되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질문의 의미를 최대한 명료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예문 6>은 선택범주에 그래픽을 사용한 사례다.

<예문 6> 다음은 여러 가지 감정상태를 나타내는 얼굴 표정입니다. 어느 얼굴 표정이 귀하의 감정상태와 가장 가깝습니까?



자료: Andrews and Withey (1976).

한편, 전화조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문항이 훨씬 간결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항 수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자가 전화조사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둘째, 분석기법에 따라 질문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질문 형태는 범주형 변수(예문 7)와 척도형 변수(예문 8)로 대별된다.

<예문 7>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떠오르는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_\_\_ ① 소비자를 희생시켰다
- \_\_\_ ②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였다
- \_\_\_ ③ 부동산에 투기하였다
- \_\_\_ ④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 \_\_\_ ⑤ 독과점으로 폭리를 취하였다
- \_\_\_ ⑥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 \_\_\_ ⑦ 탈세를 일삼았다
- \_\_\_ ⑧ 정치권력과 밀착하였다
- \_\_\_ ⑨ 지역감정을 심화시켰다
- \_\_\_ ⑩ 기타(\_\_\_\_\_)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a).

<예문 8> 귀하는 다음 전문가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매우 신뢰한다’ 중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곳에 √하여 주십시오.

	불신	←————— 중간 —————→										신뢰	모르겠다
(가) 국회의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나) 변호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다) 행정관료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라) 대기업 임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마) 기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바) 교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사) 의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야) 치과의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재) 한의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차) 약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카) 시민운동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8

자료: 송호근·이재열·설동훈(2001: 205).

#### 4. 질문지 문항의 배열

조사자가 응답자와 이야기를 할 때 화제(話題)가 연결되는 것처럼 문항을 배치하도록 한다. 질문 내용이 바뀔 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단락이 바뀔을 알려주어야 한다. 질문 문항의 배치는 가급적 쉬운 문항, 응답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 앞에 오도록 하고, 내용이 어렵거나 응답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문항은 뒤에 두는 것이 좋다.

### IV. 질문 문항 작성시 유의 사항

#### 1. 준거의 단위

질문 문항은 응답자 자신(개인)의 태도와 의식을 측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



첫째, 포괄성 문제는 기타 범주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예문 5, 예문 7 참조). 사전조사나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응답범주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범주를 제시하도록 한다. 응답결과는 개방형 질문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폐쇄형 범주와 종합한다.

둘째, 상호배제성 문제는 복수응답으로 질문형태를 변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오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빚을 내고, 저축한 돈을 사용하거나, 퇴직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많다(예문 12).

<예문 12> 귀하는 한국에 오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 ㉠ 빚을 내었다
- \_\_\_ ㉡ 저축한 돈을 사용하였다
- \_\_\_ ㉢ 퇴직금을 사용하였다
- \_\_\_ ㉣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자료: 설동훈(1999: 548).

### 3. 우선 순위를 부여한 복수응답

폐쇄형 질문의 선택지들 중에는 응답자에게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중요한 순서대로 고르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다(예문 13).

<예문 13> 의약분업 이후 귀하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첫째  둘째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보험료 인상</li> <li>② 초진료·재진료 인상</li> <li>③ 병원 내 의료서비스</li> <li>④ 진찰 접수관련(예, 진찰예약과 대기시간)</li> <li>⑤ 병·의원에서 약을 받지 못하는 것</li> <li>⑥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것</li> <li>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li> </ul> |
|---|

자료: 송호근·이재열·설동훈(2001: 193).

#### 4. 중간범주와 “모르겠다” 범주

태도나 의식 및 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의 선택지는 서열척도나 등간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중간범주의 유무’와 ‘범주의 수’가 기본 쟁점이 된다. 먼저, 중간범주는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중간”, 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등의 형태를 띤다. 일반적으로 태도척도는 중간범주를 포함한 홀수척도를 사용한다. 그런데 기존 조사결과를 보면, 중간범주에 응답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또는 “중간범주가 아닌 범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로 짝수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홍형식(2000)은 국내 언론과 조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다가 4점척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고발하였다(표 1 참조).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관망과가 사회세력의 하나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간범주를 제외할 경우 여론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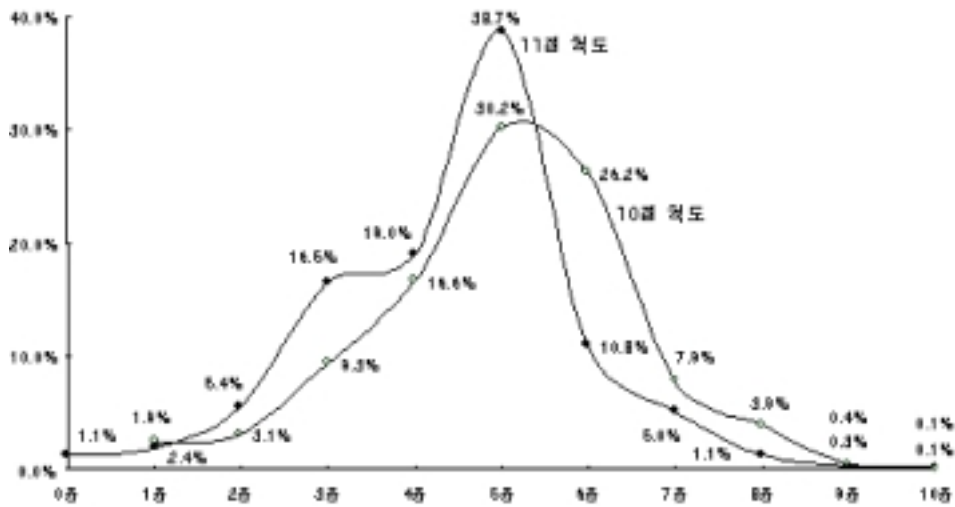
중간범주의 포함 유무에 따른 홀수척도와 짝수척도의 차이는 11점척도와 10점척도에서도 확인된다. 11점 척도는 5점이 중간, 10점 척도는 5점과 6점 사이가 중간이 된다. [그림 2]에는 선택 범주의 중간항 유무에 따른 ‘주관적 가족생활수준’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11점 척도에서 38.7%에 달하는 중간 범주 응답자가 10점 척도에서는 양쪽으로 흩어지고 있다.<sup>1)</sup>

<표 1> 선택 범주의 수에 따른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 2000년 8월

언론사-조사기관	지지도	범주의 수
연합뉴스-R&R	74.9	4
월간중앙-중앙팀	74.3	4
문화일보-소프레스	71.0	4
MBC-갤럽	59.0	5
조선일보-갤럽	54.4	5
YTN-한길리서치	52.0	5
조선일보-갤럽	48.5	5
중앙일보-중앙팀	42.4	5

자료: 홍형식(2000: 46).

1) 1996년과 1997년의 조사시기 차이에 따른 주관적 가족생활수준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하여야 한다.



주: 10점 척도는 1996년 1월(N=1762), 11점 척도는 1997년 3월(N=794)에 실시한 조사에서 사용하였음.

자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b); 임현진·이재열·박광민·설동훈(1997).

[그림 2] 선택 범주의 중간항 유무에 따른 가족 생활수준 평가의 차이

한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는 중간범주를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예컨대, “귀하는 오는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계획입니까? 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태도는 중간범주가 불가능하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파업의 참여 여부”를 물을 경우 중간범주를 포함하면 안 된다.

대신, 미래의 일을 가정하여 응답자의 판단을 요구하거나, 그의 행동 양식을 측정할 경우에는 “모르겠다”라는 범주를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응답자의 반응이 전문적 식견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모르겠다”는 범주가 사회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 그 경우 “모르겠다” 범주가 없으면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Fowler 1995: 164~165).

<예문 14> 현재 iloveschool.co.kr의 인기가 높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iloveschool.co.kr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 봅니까?

- \_\_\_ 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 \_\_\_ ② 한동안 지속은 되지만 오래 못 갈 것이다
- \_\_\_ ③ 일시적 현상이다
- \_\_\_ ④ 잘 모르겠다

자료: 동국대학교 사회조사실습팀(2000).

<예문 15> 귀하는 의약분업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_\_\_ ① 필요한 정책으로 꼭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_\_\_ ② 필요한 정책이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 \_\_\_ ③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정책이다
- \_\_\_ ④ 잘 모르겠다

자료: 송호근·이재열·설동훈(2001: 191).

## 5. 범주의 수

보통 홀수형 척도는 3점, 5점, 7점, 11점, 101점 척도를, 짝수형 척도는 2점, 4점, 6점, 10점, 100점 척도를 사용한다. 척도를 세분화할수록 응답자들 사이의 미묘한 태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무한정 세분한다고 해서 측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응답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척도를 세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문 16>와 <예문 17> 및 <예문 18>은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11점 척도 행복도(Diener 1984), 10점 척도의 행복도, 7점 척도의 즐거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이다. [그림 3]은 척도의 범주 수에 따른 응답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예문 19>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101점 척도다.

<예문 16> 귀하는 보통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불행하십니까? 귀하가 보통 때 느끼는 행복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를 다음 중에서 고르십시오.

- \_\_\_ ⑩ 극도로 행복하다(취할 정도로 행복하여 멋지게 좋다)
- \_\_\_ ⑨ 매우 행복하다(정말 기분이 좋고 기쁘다)
- \_\_\_ ⑧ 어지간히 행복하다(활기 있고 기분 좋다)
- \_\_\_ ⑦ 다소 행복하다(어느 정도 기분 좋고 다소 상쾌하다)
- \_\_\_ ⑥ 약간 행복하다(보통보다 조금 기분 좋다)
- \_\_\_ ⑤ 보통이다(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 \_\_\_ ④ 약간 불행하다(보통보다 조금 기분 나쁘다)
- \_\_\_ ③ 다소 불행하다(다소 불쾌하다)
- \_\_\_ ② 어지간히 불행하다(기분이 가라앉고 풀이 죽어 있다)
- \_\_\_ ① 매우 불행하다(우울하고 활기가 거의 없다)
- \_\_\_ ① 극도로 불행하다(완전히 우울하여 기분이 밑바닥 상태다)

<예문 17>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10개의 계단으로 된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 계단은 선생님의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⑩점을 나타내고, 맨 아래 계단은 선생님의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상태로서 ①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삶의 질은 사다리의 어느 계단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치를 적어주십시오.

<예문 18> 요즘 귀하의 생활은 어느 정도 즐겁습니까? 혹은 지긋지긋하십니까?

- \_\_\_ ⑦ 매우 즐겁다
- \_\_\_ ⑥ 즐겁다
- \_\_\_ ⑤ 약간 즐거운 편이다
- \_\_\_ ④ 즐겁지도 지긋지긋하지도 않다
- \_\_\_ ③ 약간 지긋지긋한 편이다
- \_\_\_ ② 지긋지긋하다
- \_\_\_ ① 매우 지긋지긋하다

자료: 조명환·김정오·설동훈(1995: 75, 77, 86).

11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0.2%	0.5	2.3	2.7	4.6	16.8	17.9	35.1	15.6	3.9	0.4%
(평균=26.49, 표준편차=31.24, N=564)											

10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0.5%	1.1	3.4	7.1	26.8	28.0	21.3	10.6	1.2	0.0%
(평균=8.51, 표준편차=30.61, N=564)										

7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4.1	16.8	23.8	29.3	22.0	2.5%
(평균=16.96, 표준편차=42.35, N=564)							

주: 평균과 표준편차는 -100에서 100까지 등간 분포하게 재부호화하여 계산한 값임.

[그림 3] 11점, 10점, 7점 척도의 삶의 질 만족도 점수 비교

<예문 19> ○○님께서는 지난 1년간 국회활동을 보시면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경우 0점, 보통정도면 50점, 아주 잘했으면 100점 등, 0점에서 100점 사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조선일보·한국갤럽(2001: 5).

## 6. 조건부 질문

질문에 따라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특정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응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문 20>은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질문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예문 20> 귀하는 본국에 송금을 하십니까?

\_\_\_ ① 송금한다

\_\_\_ ② 송금하지 않는다

(가) 귀하는 어떻게 본국으로 송금하십니까?

\_\_\_ ① 우편으로(보기: 편지)

\_\_\_ ② 내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_\_\_ ③ 한국인 친구나 친척의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_\_\_ ④ 고용주의 이름으로 은행을 통하여

\_\_\_ ⑤ 귀국하는 친구·친지를 통하여

\_\_\_ ⑥ 귀국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나) 귀하의 한 달 평균 송금 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다) 귀하는 왜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으십니까?

\_\_\_ ① 귀국할 때 내가 직접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_\_\_ ②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_\_\_ ③ 송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_\_\_ ④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좀 모이면 그 때 송금할 것이다.)

\_\_\_ ⑤ 중국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_\_\_ ⑥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_\_\_ ⑦ 기타(구체적으로: )

자료: 설동훈(1999: 558~559).

## V. 척도 구성 방법과 사례

척도란 논리적·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진 복합적 측정도구를 가리킨다(홍두승 2000: 131). 척도 구성에서는 항상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측정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가, 그 개념이 정확히 측정되었는가하는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기로 한다.

### 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 척도

필자는 필리핀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일하러 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문 21> 다음은 주요 직업 목록입니다. (A) 필리핀에 있는 가족, 친·인척 중 아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B) 필리핀에 있는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 중 아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C) 서로 잘 알지만 거의 만나지 않는 '아는 사람' 중 아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한국에 있는 (D) 귀하의 가족, 친·인척, (E) 친구, 선·후배, (F) 아는 사람 중 아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필리핀				한국		
(A)	(B)	(C)		(D)	(E)	(F)
가족, 친·인척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		가족, 친·인척	친구, 선·후배	아는 사람
			상층 화이트칼라			
—	—	—	⑪ 변호사	—	—	—
—	—	—	⑫ 엔지니어	—	—	—
—	—	—	⑬ 경영자	—	—	—
—	—	—	⑭ 기업 과장	—	—	—
—	—	—	⑮ 자영업자	—	—	—
—	—	—	⑯ 노동조합 간부	—	—	—
—	—	—	⑰ 교사	—	—	—
			하층 화이트칼라			
—	—	—	⑱ 보험설계사	—	—	—
—	—	—	⑲ 비서	—	—	—
—	—	—	⑳ 판매원·외판원	—	—	—
—	—	—	㉑ 사무기계 조작원	—	—	—
—	—	—	㉒ 하급 사무원	—	—	—
			상층 블루칼라			
—	—	—	㉓ 조장·반장	—	—	—
—	—	—	㉔ 숙련공	—	—	—
—	—	—	㉕ 기계정비공·카센터수리공	—	—	—
—	—	—	㉖ 기계운전공·기계제작공	—	—	—
			하층 블루칼라			
—	—	—	㉗ 경비원·순찰원	—	—	—
—	—	—	㉘ 웨이터·바텐더	—	—	—
—	—	—	㉙ 수위·집꾼	—	—	—
—	—	—	㉚ 단순노무자·건설노동자	—	—	—

자료: Park and Seol (1998).

이주노동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척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사회적 자본 개념을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해 접근-사용(또는 동원)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매겨진 자원”으로 정의하였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데는 ‘지위를 제시하는 방법’(position generator)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는 방법’(name generator)이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다.<sup>2)</sup> 질문 문항 작성 방식은 20개의 직업을 선택지(y축)로 제시하여 가족과 친·인척, 친구와 선·후배, 아는 사람(x축) 중 해당자가 있으면 모두 체크하게 하였고, 이주 전후의 상황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리핀과 한국으로 구분하였다. 가족과 친·인척, 친구와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계의 강도’(strength of ties)를 측정하였고(Granovetter 1973, 1983 참조), 필리핀과 한국을 구분함으로써 ‘연결망의 이식(移植)’을 개념화하였다.

점수부여 방식은 <표 2>에 제시된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를 10점 단위(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로 재부호화(recode)하여 ‘같은 간격’을 유지하게끔 조정한 다음,<sup>3)</sup> 9개 점수구간별(x축)로 체크된 직업의 사회경제적지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높고 낮은 지위의 사람을 골고루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수’는 무시하였다. 그렇게 한 까닭은 사회적 자본이 가진 두 가지 효과, 즉 정보(information)와 영향력(influence)이라는 점에서 수보다는 존재 유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예컨대 10명의 ‘보험설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1명의 ‘보험설계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정도의 사회적 자본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표 2> 던칸의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Duncan SEI Score)

상층 화이트칼라		⑭ 사무기계 조작용	45.0
⑪ 변호사	92.3	⑮ 하급 사무원	44.0
⑫ 엔지니어	86.9	상층 블루칼라	
⑬ 경영자	75.1	⑰ 조장·반장	49.7
⑭ 기업 과장	70.6	⑱ 숙련공	44.0
⑮ 자영업자	62.0	⑳ 기계정비공·카센터수리공	27.0
⑯ 노동조합 간부	59.8	㉑ 기계운전공·기계제작공	21.0
⑰ 교사	44.2	하층 블루칼라	
하층 화이트칼라		㉒ 경비원·순찰원	18.0
⑲ 보험설계사	66.0	㉓ 웨이터·바텐더	17.0
⑳ 비서	61.9	㉔ 수위·집꾼	12.7
㉑ 판매원·외판원	49.4	㉕ 단순노동자·건설노동자	7.9

자료: Duncan (1961); Lin and Dumin (1986: 374).

2)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한 국내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1996b)가 있다.

3) 변호사, 엔지니어 90점, 경영자 80점, 기업 과장, 보험설계사 70점, 자영업자, 비서, 노동조합 간부 60점, 조장·반장, 판매원·외판원, 사무기계 조작용 50점, 숙련공, 하급 사무원 40점, 기계정비공·카센터수리공 30점, 경비원·순찰원, 웨이터·바텐더 20점, 수위·집꾼, 단순노동자·건설노동자 10점.

이 척도를 통해서 필리핀과 한국의 두 사회에 존재하는 6개의 사회적 자본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2.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척도

사회적 자본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뺨”이 되어 줄 수 있는 힘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필자는 2001년 1월에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 <예문 22>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자본’ 척도를 포함시켰다. 한국사회에서 “뺨”이 될 수 있는 직업 8개를 제시하고, 가족과 친·인척, 친구와 선·후배 및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하도록 요구하였다.

점수부여 방식은 8개 직업간에는 지위의 동질성이 보장되므로 체크한 직업 수로 측정하였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수는 무시되고,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가족과 친·인척 등 강한 연결을 통해 매개되는 사회적 자본’과 ‘친구와 선·후배 및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등 약한 연결을 통해 매개되는 사회적 자본’ 구분할 수도 있고, 그 둘을 합하여 ‘사회적 자본의 총량’을 계산할 수도 있다.

<예문 22> (가) 귀하의 **가족 또는 친·인척**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 ㉠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 등)
- \_\_\_ ㉡ 고급 관료 및 기관 임원
- \_\_\_ ㉢ 군 및 경찰 간부
- \_\_\_ ㉣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 \_\_\_ ㉤ 금융인(은행지점장 등 중역)
- \_\_\_ ㉥ 기업인(대기업 부장 이상 간부, 중소기업 사장 등)
- \_\_\_ ㉦ 언론인
- \_\_\_ ㉧ 대학교수

(나) 귀하의 **친구나 선·후배 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_\_\_ ㉠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 등)
- \_\_\_ ㉡ 고급 관료 및 기관 임원
- \_\_\_ ㉢ 군 및 경찰 간부
- \_\_\_ ㉣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 \_\_\_ ㉤ 금융인(은행지점장 등 중역)
- \_\_\_ ㉥ 기업인(대기업 부장 이상 간부, 중소기업 사장 등)
- \_\_\_ ㉦ 언론인
- \_\_\_ ㉧ 대학교수

자료: 송호근·이재열·설동훈(2001: 212).

### 3. 탈물질주의 가치 척도

잉글하트(Inglehart 1998)는 43개 나라의 가치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 척도를 개발하였다. 세계가치조사는 한국에서도 실시되었는데, 문화와사회연구회가 1995년에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잉글하트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12개 범주 또는 4개 범주의 선택지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2개 범주에 의한 측정법은 <예문 23>과 같다. 응답자에게 “여러 가지 국가 목표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각 묶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가), (나), (다)의 문항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 물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5개 이상 고르거나, 탈물질주의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5개 이상 고른 응답자는 각각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응답자를 혼합형으로 분류한다.

4개 범주만으로 가치유형을 구분할 경우에는 (가) 문항만 이용한다.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모두 탈물질주의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경우는 탈물질주의자로 분류되며, 물질주의자는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모두를 물질주의 항목에서 선택한 사람이다. 한편 혼합형은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를 물질적인 것, 다른 하나를 탈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선택한 경우이다(정철희 1997; 이재열 1999).

<예문 23> 여러 가지 국가 목표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다음 각 묶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하나씩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가) 첫째  둘째

- |               |                       |
|---------------|-----------------------|
| ①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 ② 직장과 사회에서 시민의 발언권 증대 |
| ③ 방위력 증강      | ④ 환경 개선               |

(나) 첫째  둘째

- |                       |                  |
|-----------------------|------------------|
| ① 언론자유 보장             | ② 물가 인상·인플레이션 억제 |
| ③ 정부 정책결정에 시민의 발언권 증대 | ④ 사회의 질서 유지      |

(다) 첫째  둘째

- |            |                      |
|------------|----------------------|
| ① 경제 안정    | ②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   |
| ③ 각종 범죄 소탕 | ④ 돈보다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 |

자료: 송호근·이재열·설동훈(2001: 208).

#### 4. 전통적 생활 태도 척도

조명한·김경동·강현두(1993)는 1992년 실시한 「청소년 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 전통적 생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것에는 <예문 24>에 제시된 것처럼, 남성 우선, 연장자 우대, 체면 중시, 집단 우선, 확대가족주의, 장남의 부모봉양 의무 등이 포함된다.

김경동·설동훈(1994)은 요인분석을 통해 이 척도를 재분류하였다. 즉 (가)와 (나) 문항은 연령위계제(age hierarchy)를, 나머지 문항은 가부장제(patriarchy)를 나타낸다. 한국 청소년들은 가부장제적 전통 생활 태도에서는 거부하는 경향이 크지만, 연령 위계적인 전통 생활 태도는 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문 24> 다음 문항들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귀하가 그 의견에 어느 정도로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의 적당한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전적으로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④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전적으로 반대한다	

- (가)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 버스 속에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집안 어른들의 체면을 깎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라) 장남이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 개인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할아버지·할머니·삼촌·고모 모두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켜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사) 선생님은 부모님과 다름없으므로 복종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자료: 조명한·김경동·강현두(1993: 116, 465).

#### 4. 비교문화척도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인 홉스테드(Hofstede 1984, 1995)는 ‘국가간 문화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다섯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① 권력거리 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 평등문화와 불평등문화, ② 개인주의 지수(individualism index, IDV):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collectivism), ③ 남성성 지수(masculinity index, MAS): 남성성과 여성성(feminity), ④ 불확실성 회피 지수(uncertainty avoidance index, UAI):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불확실성 수용 문화, ⑤ 장기지향 지수(long-term orientation index, LTO): 장기지향과 단기지향(short-term

orientation).

또한 그는 '기업 조직 관행(practice)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① 과정 지향 대 결과 지향, ② 종업원 지향 대 업무 지향, ③ 가부장적 대 전문적, ④ 열린 체계 대 닫힌 체계, ⑤ 느슨한 통제 대 엄격한 통제, ⑥ 규범적 관행 대 실용적 관행의 여섯 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1998)에서는 이 척도를 <예문 25>와 같이 변형하여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계 기업의 근로자 의식 조사연구」에 사용하였다.

<예문 25> 다음 두 가지 대립된 의견 중 귀하의 견해와 가까운 곳에 √표하십시오.

(가) 인간의 본성:

- \_\_\_ ① 인간은 원래 외부의 강제가 없으면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_\_\_ ② 인간은 원래 능동적인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 동료들과 회의를 통해 일을 하고자 할 때:

- \_\_\_ ① 자기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_\_\_ ② 전체 분위기에 따라 가는 것이 좋다

(다) 업무수행방식:

- \_\_\_ ① 개인적으로 일을 혼자서 하는 방식이 좋다
- \_\_\_ ②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일하는 방식이 좋다

(라) 초과근무:

- \_\_\_ ①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빼앗기더라도 잔업을 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다
- \_\_\_ ② 수입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잔업을 피하고 개인적 여유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마) 조직에서의 권한 집중:

- \_\_\_ ① 회사에서 업무와 관계된 권한은 상위층에 집중될수록 일이 잘 풀린다
- \_\_\_ ② 회사에서 업무상의 권한은 아래쪽으로 이양될수록 일이 잘 풀린다

(바) 사원의 능력개발:

- \_\_\_ ① 사원의 능력개발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노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 \_\_\_ ② 회사에 들어온 이상 사원의 능력개발은 조직이 앞장서서 해 주어야 한다

(사) 근무 부서에 특별보너스가 나왔을 경우 배분 방식:

- \_\_\_ ① 개인업적과 관계없이 부서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 \_\_\_ ② 부서원의 업적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좋다

(아) 귀하의 현재 입장을 떠나서, 일반적인 승진 기준:

- \_\_\_ ① 능력이나 업적이 앞선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야 한다
- \_\_\_ ② 근속년수가 오래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진되어야 한다

(자)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방식:

- \_\_\_ ① 상부에서 결정한 다음 실무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이 능률적이다
- \_\_\_ 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층부와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상사의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결과 통지 여부:

- \_\_\_ ① 당사자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이 능력개발을 위해 좋다
- \_\_\_ ②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카) 임금과 인간적 대우:

- \_\_\_ ①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는 기업이 좋다
- \_\_\_ ② 인격적인 대우는 다소 부족하지만 임금이 더 많은 기업이 좋다

(타) 동료의 일손이 모자랄 때:

- \_\_\_ ① 퇴근시간이 되어서 나의 일이 마무리되면 곧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 \_\_\_ ② 퇴근시간이 되어서 나의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동료의 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

(파) 회사의 업무 습득:

- \_\_\_ ① 한가지 업무를 계속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_\_\_ ② 한가지 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두루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 직장과 가정생활:

- \_\_\_ ① 가정생활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회사 일에 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_\_\_ ② 회사의 일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희생할 수는 없다

(거) 규정·절차와 인간관계:

- \_\_\_ 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규정이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좋다
- \_\_\_ ② 규정이나 절차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자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1998: 370~372).

## 5. 사회적 이미지 척도

필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문 26>과 같은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척도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용하였다(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1998).

<예문 26> 귀하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귀하의 인상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하나씩 √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②	③	④	⑤				
		매우	다소	양쪽 다	다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가) 악	하 다	2	1	0	1	2	착	하	다	
(나) 의	심 스럽 다	2	1	0	1	2	미	덥	다	
(다) 지	저 분 하 다	2	1	0	1	2	깨	끗	하 다	
(라) 불	쌍 하 다	2	1	0	1	2	부	럽	다	
(마) 소	극 적 이 다	2	1	0	1	2	적	극	적 이 다	
(바) 느	리 다	2	1	0	1	2	빠	르	다	
(사) 계	으 르 다	2	1	0	1	2	부	지	런 하 다	
(아) 멀	게 느 낐 다	2	1	0	1	2	가	깝	게 느 낐 다	
(자) 노	예근성이 있다	2	1	0	1	2	주	인	의	의
(차) 보	수 적 이 다	2	1	0	1	2	진	보	적 이 다	

자료: 설동훈(1999: 399).

## 6. 평화문화 척도

문화일보 평화포럼 평화문화지수위원회는 국제통계가 집계되는 140개 나라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의 1년간을 기준으로 하는 평화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팀은 [그림 4]와 같이 평화문화 개념을 하위 지표로 분해하였다.

구분	정치·군사적 평화	사회·경제적 평화	전체
구조적 측면	<b>A</b> [국제관계] 1. 역사적 국가간 갈등·화해의 구조 2. 지정학적 조건 3. 군사화 정도 4. 계승되어 현재진행 중인 국제정치적 갈등 [국내관계] 5. 역사적 국내정치적 갈등·화해의 구조 6. 정부의 질과 능력 7. 인종·민족·종교 갈등 8. 계승되어 현재진행 중인 국내정치적 갈등	<b>C</b> 1. 생태학적·사회적 안전 2. 구조화된 사회적 불안·안정 3. 구조화된 경제적 불안·안정 4. 평균적 복리 5. 불평등과 결핍	구조평화문화지수
행위적 측면	<b>B</b> [국제관계] 1. 국제정치적 갈등·화해 [국내관계] 2. 국내정치적 갈등·화해	<b>D</b> 1. 사회적 갈등·화해 2. 경제적 불안·안정	행위평화문화지수
전체	정치·군사적 평화문화지수	사회·경제적 평화문화지수	평화문화지수

[그림 4] 세계평화문화지수의 하위 부문과 개별 영역

문화일보 평화포럼 평화문화지수위원회는 이 부분 지표들을 종합화하는 데 필요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전 세계 나라의 평화관련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2000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문 27>은 이 조사에 사용된 질문 문항의 일부다. 이 질문 문항의 (가)는 개별 지표 중 최대값을 갖는 전형적 사례에서 골랐고, (나)는 [그림 4]의 A, B, C, D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어넣었다.

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하였다. 먼저, (가) 질문을 이용하여, A, B, C, D 각각의 세부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A<sub>1</sub>부터 A<sub>8</sub>, B<sub>1</sub>과 B<sub>2</sub>, C<sub>1</sub>부터 C<sub>5</sub>, D<sub>1</sub>과 D<sub>2</sub>의 각 평균값이 그것들의 부분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각 부분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나) 질문의 각각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그것을 네 점수의 총합으로 나누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결국 A, B, C, D의 관측 값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하면 평화문화지수가 계산된다.

<예문 27> (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나라, 또는 사정에 처한 나라의 현재 평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나라	비평화 ←———— 중간 —————→ 평화									
A1. 30년 전 다른 나라와 대규모 전쟁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2. 지경학적으로 둘 혹은 그 이상의 강대국과 이웃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3. 군사비 지출이 정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4. 이웃 나라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5. 지난 30년 사이 내전 혹은 쿠데타를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6.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결핍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7. 10년 전에 대규모 인종폭동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A8. 인종 또는 종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1. 지난 1년간 다른 나라와 대규모 전쟁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2. 지난 1년간 내전 혹은 정치적 폭동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1. 재해나 범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2.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및 이혼율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3. 지난 10년간 경기변동이 매우 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4. 삶의 질이 매우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5. 빈부격차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1. 지난 1년간 큰 재해 혹은 대규모 범죄행위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2. 지난 1년간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 다음은 정치군사와 사회경제 부문의 하위 평화문화지수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다음 요인이 현재 각 나라의 평화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	거의 영향 없음 ←———— 중간 —————→ 매우 크게 영향									
A. 구조화된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B. 지난 1년간 정치군사적 갈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C. 구조화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D. 지난 1년간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료: 김경동·김병조·김태현·설동훈·이상현·이현송(2000: 43).

## VI. 질문 문항의 개발과 사용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질문 문항은 연구자의 이론적 수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자료 검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공분야의 논문과 기존 질문지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참조할 만한 데이터 보관소(data archive)로는 미국의 ICPSR(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http://www.icpsr.umich.edu>)과 한국의 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http://www.ksdc.re.kr>) 등이 있다.

독창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질문 문항이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데이터 보관소에서 검색한 자료는 새로운 질문 문항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간 내지 시계열적 비교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누구의 척도라는 식으로 명명하여 이용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문분야도 있다. 질문 문항은 연구자의 독창적 저작물이므로, 인용자는 반드시 인용 사실을 밝힘으로써 개발자의 경의(credit)를 표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질문 문항의 개발에 더 많은 학문적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

독창적인 질문 문항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질문 문항의 표준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동일한 질문을 삽입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를 점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기초 변수부터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직업의 경우 계급척도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한 것에서부터, 조금 덜 상세한 것 등 수준을 달리하는 몇 가지 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직접 수행하는 표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선택범주를 가진’ 기초변수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기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을 경우, 몇 개의 원자료를 합하여(merge)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이다. 질문지를 이용한 표본조사는 사회의 한 단면만 보여줄 뿐이지만, 동일한 문항을 동일한 조사모집단을 대상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조사하면 ‘개방형 패널’(open panel) 자료가 만들어지며, 같은 시기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면 집단간 횡단적 비교연구(cross-sectional comparative research)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1995. 『노동인력의 세계화: 인도네시아 편』.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경동 · 김병조 · 김태현 · 설동훈 · 이상현 · 이현송. 2000. 『세계평화문화지수 2000』. 문화일보 평화포럼.
- 김경동 · 설동훈. 1994. 「청소년의 사회적 삶과 태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95~155.
- 동국대학교 사회조사실습팀. 2000.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2000. (미간행)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a. 『한국 대기업에 대한 국민 이미지 현황과 개선 방안』.

- \_\_\_\_\_. 1996b.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열. 1999. 「한국의 사회의식조사」. 『사회의식에 관한 사회조사연구: 세계 각국의 사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현진 · 이재열 · 박광민 · 설동훈. 1997. 「신체적 · 심리적 안전과 삶의 질」. 《한국 인구학》 20(1):161~199.
- 정철희. 1997. 「문화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 가치와 공중-주도 정치」. 《한국 사회학》 31(봄):61~83.
- 조명한 · 김경동 · 강현두. 1993. 『청소년 문화정서지표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 조명한 · 김정오 · 설동훈. 1995.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III』.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선일보 · 한국갤럽. 2001. 「4·13 총선 1주년 여론조사」. [http://www.chosun.com/poll/download/2001/election\\_1\\_result.hwp](http://www.chosun.com/poll/download/2001/election_1_result.hwp).
- 한백연구실. 1994. 「노동시장 개방의 문화적 파장: 텔파이 조사」. 《포럼 21》 10(여름):29~45.
- 허명희. 1998. 『사회여론조사: 통계적 연구사례』. 자유아카데미.
- 홍두승. 2000.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 홍형식. 2000. 「DJ 지지도의 허와 실: 4점 척도로 지지도 왜곡하는 여론조사기관들」. 《참여사회》 47:46~49.
- Andrews, Frank M., and Stephen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542~575.
- Duncan, Otis Dudley. 1961.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s." Pp. 109~138 in *Occupations and Social Status*, edited by Albert T. Reiss, Jr. New York: Free Press.
- Fowler, Floyd J., Jr. 1995. *Improving Survey Questions: Design and Evaluation*,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Series Volume 3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1360-1380.
- \_\_\_\_\_. 1983. "The Strength of Weak Ties: A Network Theory Revisited."

- Sociological Theory* 1(1):201-233.
- Hofstede, Geert.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Newbury Parks, CA: Sage Publications.
- \_\_\_\_\_.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 나은영 역. 학지사.
- Inglehart, Ronald. 1998.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cultural Sourcebook — Political, Religious, Sexual, and Economic Norms in 43 Societies; Findings from the 1990-1993 World Values Surve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in, Nan, and Mary Dumin.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365~385.
- Marsh, Chtherine. 1990. 「여론조사: 사회과학인가 정치적 술수인가」. J. 어빙, J. 밀즈, J. 에반즈 편, 『알기쉬운 사회통계학 강의: 통계학의 비밀을 벗긴다』. 이성과 현실. Pp. 226~266
- Park, Kyung-Tae, and Dong-Hoon Seol. 1998. "Survey of Filipino Workers in Korea." Unpublished Questionnaire.
- Price, James L. 1972. *Handbook of Organizational Measurement*. Lexington, MA: D.C. Heath and Company. ㉔